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조절 정도의 조절효과 검증*

양 미 진 방 소 희 유 준 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정도의 조절효과 검증에 있다. 결혼만족 정도를 예측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 변인으로 채택하여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 능력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중 연구에 동의한 171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은 자녀의 문제행동의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상호작용효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결혼만족도, 자녀의 적응, 정서조절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였음.

[†] 교신저자 : 유준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7층, Tel : 051-662-3131, Fax : 051-662-3005, E-mail : uzine001@naver.com

청소년 문제행동은 발달적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행동, 정서에서의 부적응 결과이다(김선희, 김경연, 1998).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과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일찍이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문제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가정되기도 한다(김진호, 2010; 고성혜, 1995; 김준호, 김순형, 1992;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6; 한현아, 도현심, 2008).

특히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는 문제해결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담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자녀간의 관계 파악은 필수적이며 역기능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관계개선이 중요한 상담목표로 설정된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많은 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적응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상담과 가족상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상 부모 모두가 상담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자가 고집스럽게 부모 모두를 상담에 개입 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상담에 관심을 지니고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담장면에서 어머니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 상담

에 있어 어머니의 효과적인 조력을 위해 상담자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즉 자녀의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자녀이해 등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소수연 등, 2013). 이는 다수의 부모교육에서 자녀에 대해 이해하기, 의사소통방식 등을 주요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는 부모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다. 부모의 정서상태 및 심리적 안정감은 양육 및 훈육태도, 의사소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하유미, 박성연, 2012; Parke, McDowell, Cladis, & Leidy, 2006). 이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 이해를 위해서 우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둬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다(소수연 등, 2013).

기존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의 정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부모의 특정한 정서조절 방식이나 능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나 태도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특정한 정서조절 방식이나 능력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임희수, 박성연, 2002)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정서조절과 이에 따른 행동과 태도의 상호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상태 및 표현 이외에도 자녀의 적응에 부부관계가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부모의 갈등 수준이 높으면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고(조미정, 김민주, 2014; 하경은, 2014), 부모의 불화, 자녀와의 상호작용, 금전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처벌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게 되어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지현, 2006; 이경님, 2006).

이외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서로 이해하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다(송현정, 1998). 통계청(2014)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하루 약 3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청소년 10명 당 1명 꼴로 가출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일보, 2015, 6, 11).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혼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부모 간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서로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비난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된 자녀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행이나 범죄, 정신건강 및 적응장애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부모 중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sborne와 Fincham(1996)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에게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증상과 함께 비행, 행동장애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기한 자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와 정서상태에 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안하기 위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모의 부부관계 만족 정도에 대한 지각과 자녀 문제행동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의 정서조

절을 조절변인으로 구체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적응

안정된 부부관계는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Belsky, 1984),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진명자, 2005).

실제로 부부관계 안정성의 지표인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부모가 결혼생활에 만족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보일 때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수용적으로 받아들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한다(송현정, 1998). 또한, Belsky와 Yongblade(1991)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의 신호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영희(1995)는 고학년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행복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격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결혼행복도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모의 자녀는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높으며(이경화, 2005), 부부 관계가 불만족스럽게 되면 가정의 위기와 해체는 물론 자녀의 건전한 인성발달, 사회생활, 나아가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문제아,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정옥례, 1996).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심화된 갈등은 자녀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부모의 결혼 생활 불만족은 자녀의 문제 행동과 높은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 Cummings, 1994).

이 밖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ebster Stratton, 1989). 그리고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자녀의 우울수준과 문제행동이 증가한다(양돈규, 1997). 또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한 가정의 청소년은 이혼가정의 청소년보다도 더 사회생활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 Senna, 1994). Kurdek과 Sinclair(1988)은 부모 간 불화 또는 친밀감 정도 등 가족 관계의 불화가 부모의 결혼상태 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Kurdek & Sinclair, 1988: 이진숙, 정혜정,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진(2000)의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부모의 부부친밀도와 정적인 상관 이 나타났으며, 자녀가 부부관계를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자녀적응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통해 자녀의 정서 모델이 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정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자녀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특히, Denham(1989)은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이 자녀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특성,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여러 사회체계와의 관계와 문화적 믿음이나 규범 등 다양한 수준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Rubin, 1998: 박은정, 2011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이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적절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는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구체적 정서를 자녀에게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정서변별을 돕고 자녀가 적절한 정서표현 양식을 학습하여 표현의 어려움이나 내적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Dusmore & Halberstadt, 1997).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잘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자녀의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수준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안소연, 2009). 반면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정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자녀는 정서표현의 내적갈등을 경험하고 정서표현을 억제하거나 관계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정운경, 박보은, 2010).

이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 부모의 정서조절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인 자녀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01).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표현이 낮은 가정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자녀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감정에 공감하기 보다는 내면화된 불안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Buck, 1984). 반면에 어머니가 적절한 강도로 표현하는 부적 정서는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하고 부적정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었다(Eisenberg & Fabes, 1994; 김준홍, 이영호,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정 내 부정정서가 강압적인지 유순한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 Meyer, 2007).

Zeman, Cassano, Perry-Parrish와 Stegal(2006)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 및 정서조절, 부모와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Zeman 등(2006)이 제시한 정서조절과 부모 사회화의 교류 모델에서도 부모의 정서와 정서조절이 자녀의 정서발달 및 행동과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Zeman 등(2006)의 모델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조절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고

당면한 발달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모 자신의 정서관리 능력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정서관리 훈련이 연쇄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을 시사한다(Zeman, 2006; 정순중, 김유숙,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Zeman 등(2006)이 제시한 교류모델에서 부모와 자녀의 정서 및 정서조절, 부모와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행동에 상호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 교류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정서조절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정서조절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변인들 간의 관계 확인을 통해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즉,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상담하는 내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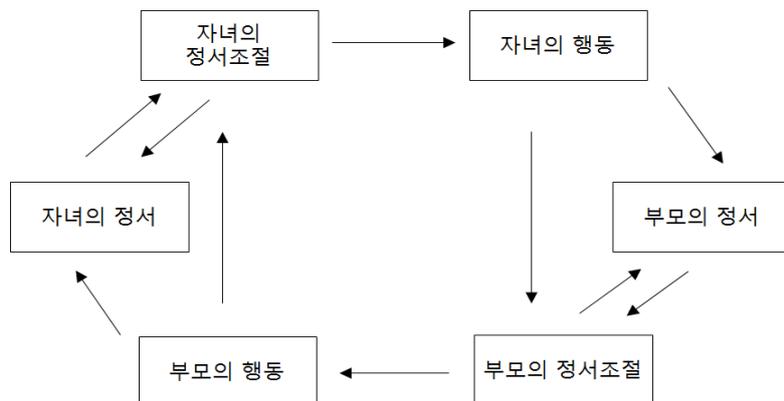


그림 1. 정서조절의 부모사회화에 관한 가설적 교류 모델(Zeman et al., 2006)

에게 가족 문제, 특히 부부문제를 다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 상담에 있어 부부관계가 함께 다루어지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위한 상담과정에서는 부모 모두가 개입하기 보다는 어머니의 상담개입과 조절기능이 상담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 중요성과 함께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의 정서조절 및 행동 간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Zeman, 2006; 정순중, 김유숙, 2006에서 재인용). 즉 Zeman 등(2006)의 모델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이 부모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과 부모로서의 행동 즉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자녀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어머니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이 조절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결혼만족 정도를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을 조절변인으로 채택하여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능력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 모형은 그림 2와 같은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다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0.29세($SD = 5.16$)였고, 자녀의 평균연령은 13.64세($SD = 2.64$)였다. 또한 평균 자녀수는 2.04명($SD = 0.80$)이었다. 학력에 따른 분포는 학사졸업이상이 161명(94.1%), 고졸 이하가 10명(5.9%)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103명(60.2%), 여자가 68명(3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한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정서조절곤란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조절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 (2004)가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 내용이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5점 척



그림 2. 연구모형

표 1. 정서조절근략척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i>a</i>
충동통제곤란	3, 14, 18, 23, 26, 31, 32	7	.73
정서에 대한 주의 / 자각부족	1, 2, 6, 7, 8, 10, 21, 33	8	.76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1, 12, 20, 22, 24, 28, 29	7	.90
정서적 명료성 부족	4, 5, 9	3	.70
정서조절 전략 접근제한	15, 16, 27, 30, 34, 35	6	.79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	13, 17, 19, 25	4	.84
전체		35	.91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충동 통제곤란 7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문항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4문항의 총 35문항으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1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는 아래와 같다.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를 권정혜, 채규만(1998)이 표준화하고 표현영(2004)이 5개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 내용이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만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전반적 불만족 4문항, 의사소통 문제 6문항, 공격행동 4문항,

표 2. 결혼만족도척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i>a</i>
전반적 불만족 척도	1, 11, 12, 18	4	.63
의사소통 문제 척도	2, 3, 4, 6, 7, 25	6	.68
공경행동 척도	5, 13, 16, 22	4	.79
성적 불만족 척도	9, 10, 20, 23	4	.79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 척도	14, 17, 19, 24	4	.76
경제적 갈등 척도	8, 15, 21	3	.64
전체		25	.78

성적 불만족 4문항,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 4 문항과 경제적 갈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아래와 같다.

자녀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이 재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개의 척도와 내재화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총 문제 행동 척도로 총 11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척도는 총 118문항으로 각각 3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검자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CBCL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62에서 .82,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8로 나타났다(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62에서 .95 이었다.

자료 분석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증력 분석(priori power analysis)으로 G-power 프로그램(Faul, 2009)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변인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후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결혼만족도를 예측변인과, 정서조절을 조절변인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준거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 때,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화(centering)한 후 SPSS 21.0을 통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사전 검증력 분석(priori power analysis)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연구 시작 전·후에 사전 검증력 분석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 크기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G-power 프로그램(Faul, 2009)을 이용하여 충분히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표본 크기를 추정하였다.

예측변수가 2개인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검증력을 .80으로 작은 효과크기(.02)와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15)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례 수는 68명부터 485명까지 분포하였다.

상관분석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나이, 자녀수, 직업, 자녀나이, 자녀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주요 연구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행동은 결혼만족도, 정서조절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3. 변인들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나이	1	-.030	.101	.233**	-.023	-.012	-.057	-.044
2. 자녀수		.697	.197	.002	.763	.880	.460	.566
3. 직업			1	.214**	-.049	.041	-.091	.010
4. 자녀나이				.006	.526	.603	.241	.898
5. 자녀성별				1	-.008	.009	-.007	.016
6. 자녀의 문제행동					.918	.906	.929	.832
7. 결혼만족도						1	-.376**	-.673**
8. 정서조절							.000	.000
							1	.507**
평균						53.28	2.39	2.80
표준편차						9.58	.39	.65

* $p < .05$. ** $p < .01$.

위계적 회귀분석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조절정도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예측변인인 결혼만족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조절변인인 정서조절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표 4와 같이 1단계 회귀분석에서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4$, $p < .01$).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서조절이 적응과 행동문제를 31%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31$, $p < .01$). 예측변수 별로 보면 결혼만족도($\beta = -.05$, $p > .05$)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beta = -.65$, $p < .01$)은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 상호작용 변인은 종속변인을 5%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5$, $p < .01$). 예측변수 별로 보면 결혼만족도는($\beta = -.85$, $p < .01$), 정서조절($\beta = -.71$, p

표 4.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정도의 조절효과검증

단계	예측변수	B	SE B	β	R ²
1단계	결혼만족도	-3.50	0.66	-.38**	.14**
2단계	결혼만족도	-0.43	0.61	-.05	.45**
	정서조절	-6.22	0.63	-.65**	
3단계	결혼만족도	-7.89	2.00	-.85**	.50**
	정서조절	-6.77	0.62	-.71**	
	결혼만족도*정서조절	2.97	0.76	.86**	

* $p < .05$; ** $p < .01$

< .01),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의 상호작용항 ($\beta = -.71, p < .01$) 모두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종모형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의 상호작용변인은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단순효과 검증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 간 상호작용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인 정서조절의 평균에서 1SD 위, 그리고 평균에서 1SD 아래에 점수를 얻은 집단들을 설정하고 회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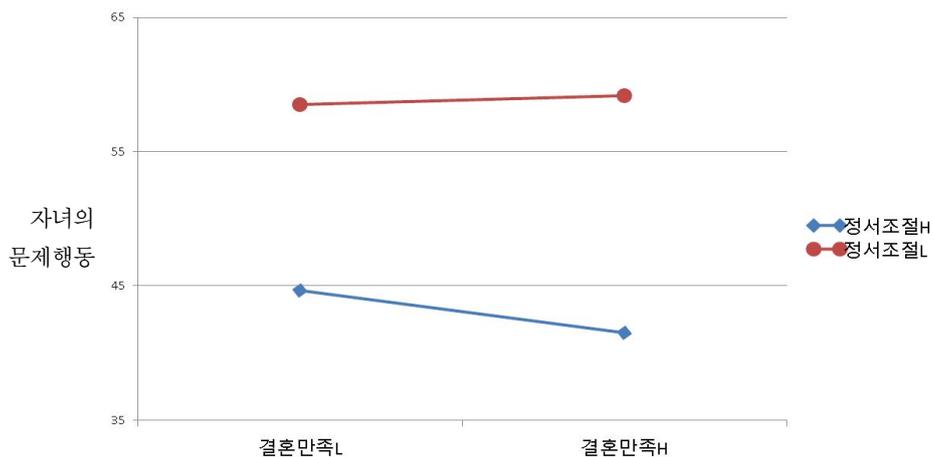


그림 3. 결혼만족도와 정서조절 단순효과검증

정식에 대입하여 측정치를 계산하는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서영석, 2010에서 재인용).

그림 3에서와 같이 정서조절의 수준과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정서조절이 잘 되는 정서조절H 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유의미한 부적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정서조절이 잘 되는 어머니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았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b = -1.656, p < 0.05$). 반면, 정서조절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858, p > 0.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상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결과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지각되면 자녀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문제행동이 감소되고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수용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송현정, 199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행복도 수준에 따라 자녀의 인격형성이 영향(김영희, 1995)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부부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부부갈등과 자녀의 인성발달, 사회생활 및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비행 및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고(정옥레, 1996), 부모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미정, 김민주, 2014; 하경은, 2014). 이와 더불어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및 부부갈등과 같은 열악한 가정환경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유성경, 홍세희, 최보은, 2004; 장진아, 신희천, 2006; Shonk & Cicchetti, 2001), 부모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사회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임희수, 박성연, 200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관계의 원만함의 정도에 따라 부모간의 양육행동이 긍정·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될 때,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부간의 심화된 갈등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부모의 결혼생활 불만족은 자녀의 문제 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avies & Cummings, 1994).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 문제 행동에 긍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Belsky & Youngblade, 1991), 부모의 결혼생활 불만족은 자녀의 문제 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 Cummings, 1994).

어머니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문제와 더불어 부정적인 태도로 대할 가능성이 높고(조준오, 나정, 홍광표, 2015), 어머니 스스로의 내적 갈등으로 부모 역할 수행에 문제를 야기시켜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나 상황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국성민, 2008). 따라서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 만족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녀를 수용적이고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송현정, 1998; 이경화, 2005; 진명자, 2005)를 통해 어머니의 안정적 부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계적회귀분석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적응 및 행동 문제가 적은 반면, 정서조절 수준이 낮으면 결혼만족도에 관계없이 자녀의 적응 및 행동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 정서조절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적응 사이에서의 작용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성 및 정서조절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머니의 낮은 결혼 만족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훈육방법, 의사소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하유미, 박성연, 2012; Parke et al., 2006) 보

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정서조절이 낮은 경우 결혼만족도의 정도에 관계없이 자녀의 행동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와 자녀의 행동문제 분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분노 각성 수준이 높고 분노를 밖으로 표현할수록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유미(2008)의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결핍돌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밖에도 부모의 긍정적 표현성이 자녀의 건강한 정서표현 및 효율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Denham, 1989; 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연구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잘 처리 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의 내용을 지지한다(Eisenberg et al, 2000). 이는 적절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가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구체적 정서지식을 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정서변별을 도울 수 있고 자녀의 적절한 정서표현 양식을 학습하여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나 내적 갈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Dusmore & Halberstadt, 1997). 또한 전반적인 정서표현성이 낮은 가정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자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보단 내면화된 불

안이나 고통을 느끼고(Buck, 1984).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내면적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Eisenberg 등(200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상담 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부부관계는 자녀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가정 내 긴장을 조성하고 자녀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부정적이고 불안정하지 못한 감정 표현은 자녀에게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 불편감과 혼란감을 초래할 수 있다(정윤경, 박보은, 2010).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자녀의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받는 부모의 영향력을 되도록 빨리 부모가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부모는 부부간의 문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상담개입을 하는 경우 상담자는 부모에게 자녀의 현재 상태와 이와 관련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상담 관련 문헌에서는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 및 컨설팅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임상적 경험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정순례 외 2015). 따라서 이러한 자녀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주된 구성요인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나 부모 각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과 만족감이 충족되어야 하며 혹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정서조절의 조절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부모상담 및 아동청소년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정서조절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자신의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조절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은혜, 이동귀, 2014). 즉 정서조절을 통해 순간적인 긴장과 감정에 따른 대처가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절 중요성을 바탕으로 많은 상담 현장에서는 분노조절 및 정서조절을 위한 기법 등을 사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시사 하는 바와 같이 정서조절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분리하여 대상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건강한 부부생활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녀의 건강한 성

장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는 각 개별적인 생활의 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적응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또한 완벽한 인격체라 할 수 없기에 본인의 취약한 부분이 자녀에게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개별적인 스트레스를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칫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구성원 개개인이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부모지원센터와 상담관련기관의 부모교육을 수강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평소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어머니 집단으로 설문에 보다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표본의 대표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무선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CBCL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적응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자녀들의 실제 적응정도를 정확히 측정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TRF검사와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YSR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머니의 정서조절의 측정 역시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를 크로스 체크하여 변

인의 타당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간의 문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부모 자신의 인식부족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녀의 부적응과 문제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주된 구성요인과 부모의 자기이해 탐색, 부모-자녀간의 이해, 부부관계 갈등 시 스트레스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전략이 담긴 부모의 상담 지원 개입프로그램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부부관계의 갈등을 탐색하고 회복할 수 있는 등의 개입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간의 갈등 시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담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담훈련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5). 청소년 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국성민 (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심리장애 진단

- 아동의 K_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675-696.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영희 (1995). 부모의 행복도 수준과 자녀의 인격장애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 (2008). 어머니의 분노경향성과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김순형 (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홍, 이영호 (2011). 지각된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성인자녀의 성차를 고려하여. 놀이치료연구, 15(3), 15-33.
-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진호 (2010). 청소년문제행동과 보호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제행동통제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7(4), 151-173.
- 박은정 (2011). 부모공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소수연, 김경민, 양대희, 안지영,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이현숙 (201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송현정 (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소연 (2009).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수용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 적성출판사.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이경님 (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 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 이경화 (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진숙, 정혜정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 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3(1), 37-54.
- 장은혜, 이동귀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5-38.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18(3), 569-592.
- 정순중, 김유숙 (2006). 학부모 정서관리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817-838.
-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5).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옥례 (1996).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4), 111-125.
- 정유진 (2000).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준오, 나 정, 홍광표 (2015). 유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복수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75-98.
- 진명자 (2005). 부부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2014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4page.
- 표현영 (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경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 한국일보 (2015, 6, 11) 남편은 일·아내는 자식에 매달려...부부 중심의 문화를 가져라. 9면.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6). 청소년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현하,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lsky, J.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Belsky, J., & Yongblade, L. M. (1991). From family to friend: predicting positive dyadic interaction with a close friend at 5years of

- age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 *Human Development*, 7, 35-62.
- Bronfenbrenner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enham, S. A.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3), 368-37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smore, J. C., & Halberstadt, A.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77, 45-68.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s, E. Coats(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pp.10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dek, L. A. & Sinclair, R. J. (1988). Relation of eight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1), 90-94.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Parke, R. D., McDowell, D. J., Cladis, M., & Leidy, M. S. (2006).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The role of emotion regulatory

- processes. In D. K. Snyder, J. A. Simpson & N. J.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pp. 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onk,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17.
- Siegel, L. J., & Senna, J. J. (1994).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West Publishing Company.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Thompson, R.,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 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 Webster-Stratton, C. (1989). Conflict, and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Divorce to Parent Perception,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Zeman, J., Cassano, M., Perry-Parrish, C., & Stegall, S. (2006).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7*, 155-168.

원 고 접 수 일 : 2016. 0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0. 10

게 재 결 정 일 : 2016. 10. 14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Degree of Emotion Regulation

MiJin Yang

SoHee Bang

JunHo Yu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degree of mothers' emotion regulation affects the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The interaction between both the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s also examined. Data was collected from 171 married mothers with children and each case was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emotion regulation account for 50% of their children's level of adaptation.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emotion regulation, when the mothers' level of emotion regulation is high, their marital satisfaction affects the adjustment of the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n youth and family counseling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Adjustment of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